**국민주권정부 시대, 진안형 기본사회위원회 구축을 위한 제언**

**들어가며**

2025년 6월 3일 대선이 끝나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진안군민께서는 84.4%라는 높은 투표율과 83.69%의 압도적 지지로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염원을 분명히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거 결과를 넘어서 진안군민께서 바라시는 정치와 행정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진안군 역시 이러한 국정 철학에 발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1. 국민주권 시대의 진안 행정 패러다임 전환**

**1-1. 위로부터 아래로의 행정 구조 혁신**

진안군은 오랫동안 중앙의 결정을 기다리고 지시를 따르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권정부 시대에는 이러한 '위로부터의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앞으로의 진안 행정은 아래로부터 움직여야 하며, 방향은 군민께서 정하시고, 과정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며,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이 성실히 설명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1-2. 주민 중심의 정책 결정 체계 구축**

진안군은 농·산촌 지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민주주의 실현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은 지역이기에 더 자주 만나고 깊이 토론할 수 있으며, 변화도 빠르게 실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국민주권의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정치와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 진안형 기본사회위원회 구축 방안**

**2-1. 참여형 정책 수립 시스템 도입**

모든 정책에 주민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권위적인 리더의 일방적인 행정은 단기적으로는 빠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예산, 개발, 복지 등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군민의 열린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2. 공무원의 역할 재정의**

공무원은 단순한 집행자가 아닌 주민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돕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며 정책에 참여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새로운 행정의 역할입니다. 공무원은 주민의 정책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중개자이자 촉진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일상적 정치 참여 활성화**

정치는 선거 때만 작동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민이 숨 쉬듯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마을 단위의 교육과 주민자치 강화, 청년과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주민발의 조례제정, 주민소환 감시 제도 강화, 마을 단위 정책토론회와 숙의민주주의 실험 등을 통해 진안군의 정치를 군민 중심으로 재구성해 나가겠습니다.

**3.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3-1.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행정 정보 체계**

모든 행정정보는 쉽게 공개되고 군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은 그 결과를 성실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들고, 왜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전문용어로 가득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불편하면 사실상 비공개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3-2.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청년미래적금, 아동수당 확대, 돌봄 기본사회 등의 정책을 진안군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습니다. 특히 농·산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 수요응답형 교통 시스템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3-3.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하여 모든 군민께서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 다양한 주거 환경 조성**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담 가능한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 지역 자율성과 창의성 기반의 미래 비전**

**4-1.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중앙정부와 협력하되, 진안군 고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키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진안군은 단순히 국가 정책의 수혜자나 지시받는 행정 단위가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4-2. 지역 특성 기반 정책 설계**

우리 지역에는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진안군의 특성과 문제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진안군만의 독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맺음말**

이제 진안군이 군민의 뜻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군청의 문은 더 넓게 열리고, 공무원의 자세는 더 낮아지며, 정치인의 귀는 더 깊게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안군도 국민주권의 시대에 맞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군수 후보자로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진안형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축하고, 모든 군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진정한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시대, 진안군이 전국의 모범이 되는 민주주의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안군수 후보 이우규*